

이재용 “삼성 한가족” 호소, 金총리 “긴급조정 강구”

시진핑 만나고온 트럼프 “대만에 무기 안 팔수도”

“중과 전쟁 안원해” 안보 변화 시사 “대만이 미반도체 홈쳤다” 주장도

21일 파업 예고 속 노사 오늘 협상
李 회장 해외출장중 급거 귀국 해
“힘 모으자... 비바람 제가 맞겠다”

金 “국민경제 보호, 모든 수단 쓸것”
노조 “화합 위해 조정 성실 참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인 21일을 사흘 앞둔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의 대화 호소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압박이 잇따라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던 삼성전자 노조도 대화에 응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맞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한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세 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 긴급조정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리의 담화문 발표 장소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

부 장관도 참석했다. 초유의 반도체 파업으로 피해 손실이 100조 원으로 추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긴급조정권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리가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노사가 사후조정을 시작한 만큼 그 조정 안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김 총리의 대화 호소에 노조의 강경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김 총리 담화 이후 “노사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11~13일 중앙노동위원회의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추가 대화 없이 18일간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가 요구해 온 회사 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를 받아들여 기존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 퍼플링장(부사장)으로 대표교섭위원을 바꿨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할 예정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파업은 국민뿐 아니라 사내 다른 노조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 부진, 증시, 환율 등 파업의 막대한 경제적 악영향을 감안해 노사 대화와 더불어 긴급조정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민아 omg@donga.com 권오혁 기자
▶A2·3면에 관련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해외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 귀국해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노조에 손을 내밀었다. 이 회장과 정부의 설득에 노조는 협상 재개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중국을 13~15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기 추가 판매 여부가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very good negotiating chip)’”이라고도 말했다. 미국의 대만 관련 안보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기로 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독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누군가(대만)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약 1만5000km)을 건너가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향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수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김철중 inf@donga.com / 뉴욕=임우선 특파원
▶A8·18면에 관련기사

GTX 삼성역 ‘기동 철근 누락’, 국토부 감사 착수 단 한명 민원 탓에... ‘당일치기’ 된 수학여행

서울시, 5개월 지나 국토부 보고
정부, 외부기관 통해 검증에 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국토교통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고 감사에 착수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GTX A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에 주철근이 2열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1열만 시공되는 오류가 확인됐다. 기둥 80본(중 50본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간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현장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문제를 보고받은 후 현장 점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둥에 철판을 덧대는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외부 기관을 통

해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을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와 별개로 서울시가 시공 오류 인지 후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이번 철근 누락 논란은 6·3 지방선거 서울 시장 후보 간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이날 공사 현장을 찾아 “이것이 오세훈 시장 시정의 현주소”라며 “왜 다섯 달 만에 지난 다음에야 국토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조기에 인지했고 즉각 서울시에 보고가 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전 ‘주폭’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철근 과당’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이창복 bless@donga.com·이지은·김자현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1% 민원에 휘둘리는 사회
경찰도 수차례 출동, 불안감에 “전학”

2024년 9월 5일 전북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손뽀아 기다려 온, 1박 2일간의 수학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전교생이 45명인 학교에서 상급생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교정은 조용했다. 오후 3시경, 적막을 깨고 교무실의 전화기가 울렸다. “아이들이 목말라 죽었다는데 물은 없고 거기 인솔자도 없네요.” 5학년 학부모 김모 씨의 전화였다. 수학여행을 간 아이가 물은 못 마시고 있는데 돌봐주는 선생님이 없다는 것.

당시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현장에는 교감과 담임 교사가 동행했고 학생들에게 음료수도 나눠 준 상태였지만 김 씨는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뒤로도 김 씨의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던 담임 교사는 같은 달 30일 휴직했다.

그 후로 1년여간 학교는 조용할 날이 없었다. 예전에도 ‘오예스를 간식으로 나눠 주지 마라’ 수업 중 자제를 지켰다’ 등 여러 차례 항의했던 김 씨는 수학여행 이후 더 많은 민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 송모 씨(42)는 ‘아이들 깨워줬다’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로 몰렸다가 오명을 벗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학교로 여러 차례 출동해야 했다.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이 자녀를 전학 보내면서 전교생은 20여 명으로 반 토막 났다. 학교는 고심 끝에 수학여행을 올해부터 당일치기 현장 학습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표명상으로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송 교사는 “단 한 명의 민원 때문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1%도 안 되는 소수의 민원이 다수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615일간의 과정을 살펴봤다. 이수연 lotus@donga.com·천준현 기자
▶A4면에 계속

총참고, 황금사자기 4번째 우승 A23편



총참고 교가(박창래 작사·김정태 작곡)
한강을 굽어보는 음양 언덕에
아름을 밝혀주는 햇불이 되어
새로운 질서의 씨를 뿌리니
풍성토다 그 빛은 우리 총참학원
아아 총참 총참 우리의 모교
영원히 빛나거라 총참의 이름

척추관협착증

척추관협착증

추간공확장술

- ▶ 추간공에 미세하게 얽혀있는 인대들을 킷(식약처 제조품목허가된 한 벌 구성 의료기기)로 잘라내어 추간공을 넓혀 치료
- ▶ 추간공을 넓힌 뒤 염증유발물질들을 추간공 밖으로 배출
- ▶ 추간공 깊숙이 숨어있는 유착과 염증까지도 킷으로 정밀하게 치료
- ▶ 부분마취 후 15분 정도의 시술로 치료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관 : 뇌에서부터 나와 목뼈, 등뼈를 통과해 허리로 이어지는 신경다발의 통로

추간공 : 신경다발에서 갈라진 신경가지가 지나가는 구멍

척추관 노화와 강한 충격 → “염증 발생”(추간공을 막히게 하는 주범)

- 추간공에 염증 발생 - 신경이 붓고 주변 조직 인대가 기미처럼 유착 - 유착이 심한 추간공은 혈관, 림프관, 자율신경까지도 누르고 조임 -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딱딱해지고 공간이 좁아져 척추관협착증으로 진행

척추관협착증 증상

- 엉덩이와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동반
- 허리에서 시작한 통증은 점점 다리로 내려가 발바닥까지 아픔
- 혈류가 막히면 저리고 시린 증상도 나타남

척추관협착증 비수술적 염증치료란?

- 요즘 척추질환 치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적용함
- 짧은 시술시간과 회복기간, 부분마취, 통증치료가 가능한 특징 때문임

척추관협착증의 염증치료

추간공에 숨어 있는 “유착과 염증유발물질”을 치료하는 것

척추관과 추간공을 막고 있는 염증을 제거하지 못하면,
•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함 • 재발 가능성도 함께 높아짐

추간공확장술 시술과정

1. 척추통증을 유발하는 좁아진 추간공
2. 원 내는 신경유착이 진행된 추간공 상태
3. 원 내는 시술 후 유착이 치료돼 넓어진 추간공
4. 추간공확장술 후 염증치료로 회복

추간공확장술로 어떻게 척추관협착증을 치료하나요?

치료 방법

- 추간공 접근법을 통해 열구리 방향에서 직접 추간공으로 들어가는 킷을 사용
- 부분마취로 추간공에 미세하게 얽혀있는 인대들을 잘라내어 인대 주변의 유착과 염증을 제거하고 공간을 넓혀줌
- 넓어진 추간공을 통해서 염증유발물질을 추간공 밖으로 배출

치료 원리

기계적 요인 : 추간공을 넓혀 신경 압박이 점차 풀리고 추간공을 지나가는 혈류가 개선되며 통증치료

생화학적 요인 : 염증유발물질들을 추간공 밖으로 배출

치료 원리

- 추간공이 뚫렸는지 여부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
- 혈류가 원활히 돌고 저리고 시린 증상을 치료
- 추간공이 뚫린 상태에서 약물을 적절히 주입하면 염증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

특징

- 부분마취 하에 최소 침습적으로 진행되는 시술이므로 조직손상과 상처가 적음
- 시술시간이 15분 정도로 짧고 고령, 당뇨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 환자에게도 유용함
-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240903-증-175565호 <광고>

추간공확장술의 효과

신경근 감압효과

추가 약물 주입

염증치료, 척추 혈류 개선효과, 통증치료

[추간공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는 환자]

1. 척추관협착증 환자
2. 척추유착(성상유착, 수술성) 질환 환자
3. 급성 및 만성 허리디스크 환자
4.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환자
5. 고령 혹은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의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

※ 이 시술은 염증치료 목적으로 시행함.
※ 감압 목적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시술 후 출혈, 감염 및 요추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음.

KH 광혜병원

전화상담/안내 02-538-711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6길 9(2호선 삼성역 2번 출구)